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중단매개효과 검증: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전현정** · 정혜원***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의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변인들의 변화양상을 설명하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삶의 만족의 중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자료의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추적 조사한 중1 자료 3~5차년도 데이터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결과,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은 시간이 경과함에도 각각을 안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잠재성장모형의 분석결과, 중학교 3학년 시기의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부정적일수록 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낮았으며, 삶의 만족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사이에 자녀가 느끼는 삶의 만족의 중단매개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 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삶의 만족도, 학교생활적응, 매개효과, 잠재성장모형,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 제5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발표내용 수정·보완한 것으로 본 연구는 2015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chw7@cnu.ac.kr

I. 서 론

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공간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공간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영춘, 정민숙, 2012). 학교는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하루 생활 중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공간이며 그 곳에서의 생활은 청소년 시기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조운숙, 이경남, 2010). 즉 성공적인 학교 적응은 학생들의 인생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경쟁적인 교육풍토 속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 갈등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면서 불안, 소외감 등의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김현주, 홍상황, 2015). 이러한 심리적 문제는 결과적으로 학교폭력, 약물남용, 자살 등의 비행을 일으키거나 학업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조운숙, 이경남, 2010).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지를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고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든 과정에서 잘 조화되고 교사와 다른 학생들과 원활한 사회관계를 존속해 나가며 학교생활에 적극적이고 규범을 성실히 지키며 개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유윤희, 1994). 이러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교, 가정, 친구 등 다양한 배경변인들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일차적이며 지속적 영향을 주는 변인은 부모의 양육방식이다(김현주, 홍상황, 2015). 부모는 아동이 생애 초기 가장 먼저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는 대상이며 이러한 경험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범과 도덕체계를 형성하는 기틀이 된다(김영주, 홍혜영, 2014; 이정윤, 이경아, 2004). 부모의 양육방식은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학교생활 뿐 아니라 학생 내면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현주, 홍상황, 2015; 이상균, 2012; 안명희, 신희수, 2012). 특히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자녀의 삶의 만족을 저하시킨다는 선행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김영민, 임영식, 2013; 유미숙, 신미, 전성희, 2010).

한편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방식 같은 배경변인 뿐만 아니라 학생 내적변인도 마찬가지로 주목받고 있다. 학생 내적변인 중 청소년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에서 나타나게 된다. 청

소년기의 삶의 만족도와 학교생활만족도가 거의 일치한 관계를 보고하고 있으며(이현웅, 박윤정, 2011), 삶의 만족의 정도는 학교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 되기도 한다(문은식, 2002). 이처럼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시 삶의 만족은 학교생활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부모의 양육방식이 학생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학생의 정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들은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그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기존 연구들 대부분은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단일 시점으로만 살펴보고 있다(김상미, 남진열, 2011; 김신경, 박민경, 안지선, 2014; 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이재성, 문연경, 최형임, 2012). 하지만 이들 변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변화하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장과 발달 과정을 살펴봐야 하는 변인들의 관계를 하나의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한다면 해당 연구 결과는 그 정당성에 한계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단일시점의 영향력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닌 변화양상을 반영하여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들 간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며(선택수, 2014),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육적 전략을 설정하는데 좀 더 실증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삶의 만족도, 학교생활 적응의 각각 변화가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녀 정서의 매개효과가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사이에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잠재성장모형을 함께 적용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들의 변화정도의 개인 간 차이를 검증할 수 있게 되며(류은수, 서민원, 2015; 박현정, 이진실, 2013; Selig & Preacher, 2009), 잠재성장모형은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변화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즉, 단순한 개인 간 변화정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닌 개인 내 변화궤적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류은수, 서민원, 2015; 박현정, 이진실, 2013; Selig & Preacher, 2009). 두 모형은 모두 종단적 연구 분석방법으로 활용되지만 두 모형이 가지는 장단점을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함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의 형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년 변화(중3~고2)에 따른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자녀의 삶의 만족도,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그림 1 참조)

둘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의 초기값 또는 변화율이 자녀의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 또는 변화율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의 초기값 또는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2 참조)

셋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매개효과가 존재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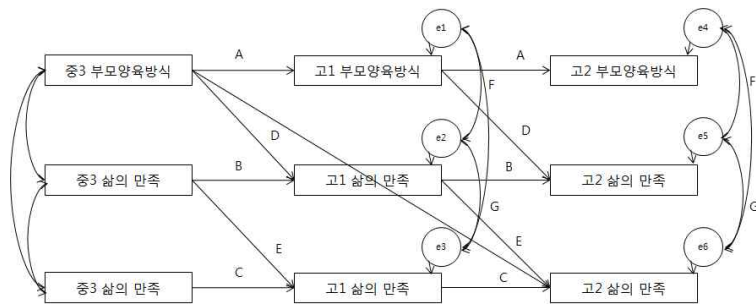


그림 1.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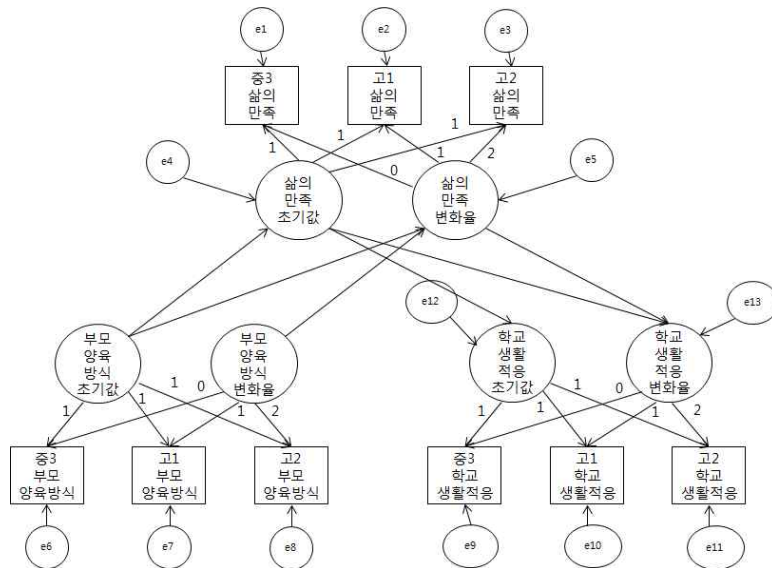


그림 2.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삶의 만족도,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학생들은 대부분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게 된다. 학교는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배움을 알아가는 공간인 동시에 인간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공간이다(김영춘, 정민숙, 2012). 즉 학교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은 학생의 내적·외적 모든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생활이 중요해지는 만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 중 가장 일차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은 부모의 양육방식이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기르고 교육하는 행동에 대한 방식이며 방향을 가진 문화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ears, 1965). 부모의 양육방식은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중 부모로부터 부정적 양육을 경험한 자녀는 부정적 발달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에 최근 자녀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의 한 형태로서 방임은 소극적 자녀학대로 여겨져 왔다. 자녀학대는 부모의 적대적이고 계획적이며 공격적인 가해행위이며, 방임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요구에 잘 반응하지 않으며 관심이 없는 태만행동이라 할 수 있다(이승화, 2001). 또한, 학대와 방임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방식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발달의 측면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그 영향은 지속적이다. 학대를 받은 자녀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이고, 이에 따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모로부터 학습된 부정적 대응방식을 행하게 된다. 이에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자녀의 또래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김정현(2008)은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자녀는 부정적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과 같은 부정적인 관계를 경험한 자녀는 사회 속 인간관계 형성에 부적절한 방식을 습득하게 되고 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형성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방식이 강압적일수록 자녀는 학교생활적응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하명선, 이순복, 2009). 또 자녀가 부모의 양육방식을 거부통제적으로 지각할수록(권용준, 김영희, 2011; 이은영, 김경혜, 2005;

Bladen & Gibbons, 2006), 과잉통제 및 과잉간섭으로 지각할수록(곽수란, 2006; 권용준, 김영희, 2011; 조호운, 김재철, 2011),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김혜영(2000)은 부모가 적대적이고 방임적인 양육방식을 가질 때 자녀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며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틀이 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정현, 2008; 손운용, 곽수란, 2006). 하지만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사이의 관계를 성장과 발달과정 관점에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 간의 관계를 다년간 반복측정에 기반을 둔 종단적 분석연구를 통해 살펴본다면 변인들 간의 변화 과정 분석 및 영향력의 단계적 설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학생이 느끼게 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은 학교생활적응 정도뿐만 아니라 학생 내면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어떠한 양육방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변화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부모가 부정적 양육방식을 갖고 있는 자녀의 경우 분노와 슬픔을 느끼고 심각한 우울증상을 갖게 된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으로 좌절, 우울을 겪는다면 좌절, 우울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멀어지거나 반대로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비행을 저지르기도 한다(이상균, 2012). 안명희와 신희수(2012)는 부모가 과도하게 자신을 간섭하고 비난을 가한다고 느낀다면 수치심, 자기비하, 우울을 경험하는 경향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통제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김현주, 홍상환, 2015). 이러한 부정적 양육방식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김신경 외(2014)는 부모의 과잉기대, 과잉간섭, 엄격한 통제와 같은 부정적 양육방식이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부정적 양육방식이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킨다는 선행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김영민, 임영식, 2013; 유미숙, 신미, 전성희, 2010). 이와는 반대로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밝혀졌으므로 부모의 양육방식이 부정적일수록 자녀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가영희, 조민자, 임성우, 2008; 김윤희, 2008; Cheng & Furnham, 2004; Suldo & Huebner, 2004).

청소년이 느끼게 되는 삶에 대한 만족은 가장 많은 활동 시간을 갖는 학교생활에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특히, 청소년이 갖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인 공격성은 범죄 행동, 반사회적 행동을 도출하여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곽금주, 1998),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유라와 노충래(2014)는 청소년의 공격성이 학교에서의 소속감, 리더쉽, 친구관계와 부정적 관계를 가지며 학교생활적응의 일반적인 문제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안지연, 손영은과 남석인(2014)은 공격성향을 띠는 학생은 강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 또래를 비롯한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겪어 학교생활 부적응이 심화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긍정적인 정서경험이 많고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아지게 된다(구지은, 2000; 이진아, 2007). 또한 이현웅과 곽윤정(201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삶의 만족도와 학교생활만족도가 거의 일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학생이 느끼는 삶의 만족은 결국 학교생활의 적응에 영향을 주게 된다(문은식, 2002).

이처럼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삶의 만족도와 같은 개인 내적 변인에 영향을 미치며 삶의 만족도는 학교생활 적응에 외현적 영향을 미치게 됨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 대부분은 단편적 시점의 연구만이 이루어졌을 뿐 변인들 간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자녀의 삶의 만족도, 학교생활적응의 각각 변화가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녀의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가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사이에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2. 매개효과

많은 연구에서 매개효과 검증이 활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매개효과 검증은 횡단적 측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종단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도 예외가 아니다. 위와 다르게 횡단적 시각이 아닌 종단적 시각으로 검증한다면 변인들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반영한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게 되며 검증한 효과가 일시적인 효과가 아닌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효과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종단적 분석방법을 활용한다면 횡단연구에서 검증의 한계점으로 나타났던 변화율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박현정, 이진실, 2013). 또한 횡단적

매개모형에서 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예측변수, 매개변수, 결과변수의 시간적 순서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둘째, 개인내의 변화와 횡단적 관계를 모두 검토할 수 있다. 셋째, 대안적인 횡단적 측면의 매개효과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MacKinnon, 2008).

종단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ing)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 중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변인 간의 상호지연효과(cross-lagged effect)를 추정할 수 있어(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같은 변인들과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또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측정오차를 통제한 후 통계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박현정, 이진실, 2013, 재인용). 따라서 시간적 선행성을 고려하여 변인 간의 상호인과적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분석방법이다(류은수, 서민원, 2015; 박현정, 이진실, 2013). 그러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간의 개인 간 변화정도의 차이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주지는 못한다(Nesselroade, 1991).

이에 반해, 잠재성장모형은 다른 관점에서의 각 변인의 시간에 따른 개인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urran와 Ballen(2001)에 의하면 잠재성장모형은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이 이전 시점의 상태를 예측변수로 보고 회귀계수로 설명하는 것과는 달리 반복 측정된 변인을 토대로 전체 시점 동안의 개인 내 변화궤적을 추정할 수 있다(류은수, 서민원, 2015, 재인용). 즉 개인 간 차이만을 검증할 수 있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는 달리 시간 경과에 따른 개인 내 차이와 개인 간 차이를 모두 검증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방법이다(류은수, 서민원, 2015). 그러나 잠재성장모형으로는 시간적 선행성을 고려하여 변인 간의 상호인과적 방향성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잠재성장모형을 모두 활용하여 두 모형이 가진 방법론적 장단점을 상호보완한 연구를 진행함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자료 3차년도에서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 간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삶의 만족의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사이의 매개효과 여부 알아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자료 중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패널(초1, 초4, 중1) 중 전국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 가운데 층화 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에 의해 추출된 2,351명을 2010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 된 2014년까지 5년간 반복, 추적 조사한 종단 연구 자료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은 2010년 16개 광역시도와 도시규모(대도시/중소도시/군지역)별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학생 수를 학년별로 비례해 지역별 표본 수를 할당하였다(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본 연구에서는 2012년(3차), 2013년(4차), 2014년(5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전체 사례 중 결측을 제외한 1,959명을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1)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 아동·청소년패널(KCYPS)의 3, 4, 5차년도 중1패널 설문에서 방임에 대한 양육방식 4문항, 학대에 대한 양육방식 4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허묘연(2000), 김세원(2003)이 구성한 아동학대 문항 중 일부를 참고하여 구성되었다. 학대 척도와 방임 척도를 합산하여 부정적 양육방식 변수를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은 4점 리커트식 척도로서, 응답은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용이함을 고려하여 학대의 4문항은 역 코딩하였으며, 응답자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alpha)는 3

차~5차의 시점별로 .757, .753, .761을 보였다. 또한 각 방식에 따른 신뢰도는 방임 .757, .710, .699, 학대 .861, .847, .818로 적절하게 나타났다.

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패널(KCYPs)의 중1패널 삶의 만족도 3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는 김신영 외(2006)의 「청소년발달지표조사 1. 결과부분 측정 지표 검증」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삶의 만족도 문항은 4점 리커트식 척도로서, 응답은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용이함을 고려하여 삶의 만족도 3문항은 역 코딩하였으며, 응답자의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alpha)는 3차~5차의 시점별로 .814, .806, .780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3) 학교생활적응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패널(KCYPs) 중1패널의 학습활동 5문항, 학교규칙 5문항, 교우관계 5문항, 교사관계 5문항을 활용하였다. 교우관계의 문항 중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문항을 제외하고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19문항의 척도를 합산하여 학교생활적응 변수를 구성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측정하는 해당 문항은 문선보(1989)의 학교생활적응척도와 이상필(1990)의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수정·보완 후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었다(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재인용). 이들 문항은 4점 리커트식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용이함을 고려하여 학습활동의 4문항, 학교규칙 5문항, 교우관계 4문항, 교사관계 5문항은 역 코딩하였으며, 응답자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의 적응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alpha)는 3차~5차의 시점별로 .868, .865, .859를 보였다. 또한 각각의 신뢰도는 학습활동 .733, .748, .773, 학교규칙 .781, .760, .750, 교우관계 .694, .689, .676, 교사관계 .838, .811, .795로 일관적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자녀의 삶의 만족도,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가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가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사이에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변인 간의 상호지연효과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과 개인 내 변화양상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으며 각 변인간의 변화율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종단자료를 활용해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박현정, 이진실, 2013).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프로그램인 AMOS 22.0을 이용하였으며, 결측치 처리를 위해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을 활용한다면 결측치가 있는 자료라도 정확하게 미지수를 추정할 수 있다(Arbuckle & Wothke, 1999).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 TLI[Tucker-Lewis Index; (Tucker & Lewis, 1973)], CFI[Comparative Fit Index; (Bentler, 1990)],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Byrne, 1998; Steiger & Lind, 1980)]를 사용하였다. TLI와 CFI는 .90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되며, RMSEA는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고 .05와 .08사이인 적절한 적합도로 해석된다(홍세희, 2000).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한국 아동·청소년패널 3, 4, 5차년도 조사에서 학교생활적응,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삶의 만족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분석하는 자료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값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모든 변인들의 절댓값이 왜도 .000~.946, 첨도 .035~3.143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왜도<2, 첨도<4’의 기준(Hong, Malik & Lee, 2003)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모든 변인들의 정규분포 가정을 모두 충족하였다. 표 1에

서 학교생활적응,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삶의 만족 측정변인들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균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삶의 만족은 시점이 지남에 따라 평균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측정변인 모두 세 시점에서 변화가 일관성 있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다.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시점에서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은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도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은 어느 시점에서든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과의 부정적 관계임을 나타내며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삶에서 느끼는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측정변인간의 상관 계수와 기술통계치

변인	3차년도(중3)			4차년도(고1)			5차년도(고2)		
	1	2	3	4	5	6	7	8	9
3차 년도									
1. 학교 생활적응									
2. 부모 양육방식	-.281***								
3. 삶의 만족	.332***	-.230***							
4차 년도									
4. 학교 생활적응	.464***	-.233***	.230***						
5. 부모 양육방식	-.253***	.487***	-.184***	-.365***					
6. 삶의 만족	.179***	-.179***	.465***	.348***	-.256***				
5차 년도									
7. 학교 생활적응	.474***	-.244***	.233***	.587***	-.303***	.270***			
8. 부모 양육방식	-.239***	.496***	-.171***	-.285***	.561***	-.199***	-.391***		
9. 삶의 만족	.143***	-.144***	.428***	.250***	-.162***	.527***	.313***	-.213***	
평균	2.892	1.839	2.846	2.926	1.768	2.833	2.937	1.713	2.796
표준편차	.398	.484	.670	.371	.427	.606	.361	.424	.588
왜도	.122	.279	-.034	.279	.288	.083	.114	.436	.101
첨도	.579	-.550	-.147	.543	-.088	.135	.894	-.098	.136

*** $p < .001$

2.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

연구문제 1인 청소년의 학년 변화에 따른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자녀의 삶의 만족도,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양상인 안정성과 변수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경로동일성(path coefficient invariance), 오차공분산 동일성(error covariance invariance)이 확립되어야 하기에(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그림 1과 같은 순차적 연구모형(모형1~모형8)을 설정하여 모형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표 2를 살펴보면 순차적 모형비교를 통한 동일성 제약을 검증한 결과, χ^2 차이 검증이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경우도 있었지만, ΔCFI 값이 .01을 초과하여 작아지지 않았고(Cheung & Rensvold, 2002), Chen(2007)에 의하여 $\Delta RMSEA$ 값이 .015을 초과하여 커지지 않았기에 동일성이 모두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윤태희, 조영일, 2014,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8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2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CFI	RMSEA(90%CI)	$\Delta \chi^2$	Δdf	ΔCFI	$\Delta RMSEA$
모형1	571.284***	14	.894	.143(.133-.153)	-	-	-	-
모형2	599.216***	15	.889	.141(.131-.151)	27.932	1	-.005	-.002
모형3	613.130***	16	.887	.138(.129-.148)	13.914	1	-.002	-.003
모형4	634.232***	17	.883	.136(.127-.145)	21.102	1	-.004	-.002
모형5	635.743***	18	.883	.132(.124-.141)	1.511	1	0	-.004
모형6	635.823***	19	.883	.129(.120-.137)	0.08	1	0	-.003
모형7	638.637***	20	.883	.126(.117-.134)	2.814	1	0	-.003
모형8	655.477***	21	.880	.124(.116-.132)	16.84	1	-.003	-.002

*** $p < .001$

최종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의 학년 변화에 따른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 특히 이전 학년의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전 학년의 높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은 다음 학년의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을 높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 학년의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은 낮아지고, 이전 학년의 삶의 만족이 높을수록 다음 학년의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세 변인의 시간에 따른 시점의 변화를 확인 하였다.

표 3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경로계수 추정 결과

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계수
부모양육방식→부모양육방식 자기회귀계수	.468***	.012	$\beta_1=.520/\beta_2=.498$
삶의 만족→삶의 만족 자기회귀계수	.445***	.013	$\beta_1=.490/\beta_2=.468$
학교생활적응→학교생활적응 자기회귀계수	.443***	.013	$\beta_1=.474/\beta_2=.477$
부모양육방식→삶의 만족 교차회귀계수	-.044*	.019	$\beta_1=.035/\beta_2=.033$
삶의 만족→학교생활적응 교차회귀계수	.036***	.008	$\beta_1=.065/\beta_2=.063$

*** $p<.001$, * $p<.05$ note. β_1 = 중3-고1시기 표준화계수, β_2 = 고1-고2시기 표준화계수

3.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

연구문제 2인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자녀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선 기술통계에서 나타나있듯이 학교생활적응,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삶의 만족 변인은 세 시점에서 변화가 일관성 있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선형 변화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서미정,

2009). 그러나 각 변인들이 측정시점에 따라 어떠한 발달궤적을 갖는지 최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을 찾기 위해 무 변화모형과 선형 변화모형의 잠재성장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시점이 세 시점이므로 무 변화모형과 선형 변화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선택하였다(홍세희, 2015). 모형 경쟁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 모두 무 변화모형보다 선형 변화모형의 적합도가 더 우수하므로 최종 분석 모형으로 선형 변화모형을 설정하였다.

표 4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비교

변수구분		χ^2	df	TLI	CFI	RMSEA
부모의 양육방식	무변화	166,266***	4	.917	.889	.144
	선형변화	7,245**	1	.987	.996	.056
삶의 만족	무변화	19,298**	4	.990	.987	.045
	선형변화	.958	1	1.000	1.000	.000
학교생활적응	무변화	38,936***	4	.982	.976	.067
	선형변화	2,407	1	.997	.999	.027

** $p < .01$, *** $p < .001$

선형모형에서 얻어진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추정값은 표 5와 같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삶의 만족의 변화율이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세 시점 사이에서 선형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삶의 만족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중3 시점에서의 삶의 만족과 학교생활적응을 느끼는 정도에 개인차가 있으며 시간이 지나며 변화하는 정도에도 개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값과 변화율에 대한 공분산은 삶의 만족에서만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에 높은 삶의 만족을 느끼는 학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삶에 느끼는 만족이 완만하게 높아지고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을 갖고 있던 학생은 변화율이 가파르게 높아짐을 의미한다.

표 5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의 발달 궤적 추정치

변수구분		평균(표준오차)	분산(표준오차)	공분산(표준오차)
부모의 양육방식	초기값	1.851***(.010)	.099***(.008)	.001(.004)
	변화율	-.066***(.005)	-.001(.004)	
삶의 만족	초기값	2.851***(.014)	.209***(.016)	-.020*(.009)
	변화율	-.026***(.008)	.020**(.007)	
학교생활 적응	초기값	2.898***(.008)	.069***(.006)	.000(.003)
	변화율	.021***(.004)	.005*(.003)	

* $p<.05$, ** $p<.01$, *** $p<.001$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의 발달궤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이 선형 변화모형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변인 간의 관련성과 변인의 변화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이론모형(그림 2)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설정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표 6과 같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이론모형	χ^2	df	TLI	CFI	RMSEA
	398.535***	24	.893	.929	.089

*** $p<.001$

이 연구모형에 대해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의 초기값에 .415($p<.001$)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에 대한 만족의 초기값은 학교생활적응의 초기값에 .566 ($p<.001$)만큼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삶에 대한 만족의 변화율은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율에 3.646 ($p<.05$)만큼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삶에 대한 만족감은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 학교생활적응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7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경로계수 추정 결과

잠재성장구간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부모 양육방식 초기값 → 삶의 만족 초기값	-.586***	.048	-.415
부모 양육방식 변화율 → 삶의 만족 변화율	-.549	.481	-.518
부모 양육방식 초기값 → 삶의 만족 변화율	.010	.024	.054
삶의 만족 초기값 → 학교생활적응 초기값	.319***	.022	.566
삶의 만족 초기값 → 학교생활적응 변화율	.242	.131	1.912
삶의 만족 변화율 → 학교생활적응 변화율	3.492*	1.728	3.646

* $p < .05$, *** $p < .001$

4. 매개효과 검증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사이에 자녀가 느끼는 삶의 만족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붓스트랩 방법(1000번 반복시행)을 시행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해 검증한 결과, 매개효과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종단적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beta = -.002$, $p < .05$). 또한,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검증한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의 크기는 $-.235 \sim -.151$ 였다. 효과의 범위가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였다(윤태희, 조영일, 2014). 즉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b = -.187$, $p < .01$).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잠재성장모형에서 모두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사이 관계에서 삶의 만족의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두 모형에서 모두 매개효과가 부적인 효과임을 나타내고 있다. 즉, 중3시기의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높을수록 고1시기의 삶의 만족이 낮아지고 이는 고2시기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초기 양육방식이 부정적일수록 초기 삶의 만족이 낮아지고 결국 초기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됨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중학교 1학년 패널 3차(중3), 4차(고1), 5차(고2)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학년 변화에 따라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자녀의 삶의 만족도, 학교생활적응의 안정성과 변수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였다. 또한 학년 변화에 따라 부모 부정적 양육방식, 자녀의 삶의 만족도, 학교생활적응이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자녀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을 매개로 학교생활 적응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전 시점의 부정적 양육방식을 조절하면 다음 시점의 부정적 양육방식을 감소할 수 있으며, 이전 시점의 삶의 만족과 학교생활을 높여주면 다음 시점의 삶의 만족과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전 시점의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은 낮아지고, 이전 시점의 삶의 만족이 높을수록 다음 학년의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전 시점의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을 조절하면 다음 시점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높아진 삶의 만족은 다음 학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여줄 수 있다. 따라서 세 변인은 학년 변화에 따라 안정적이며 잠재성장모형의 인과적 방향성이 적합함을 알아 볼 수 있었다.

변인의 변화량 추정을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자녀의 삶의 만족도,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의 학년 변화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은 중학교 3학년 때에 비해 고등학교 입학 후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방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이 느끼는 삶의 만족은 중학교 3학년 시점보다 고등학교 입학 후 감소하는 것으로 보였다. 학생의 삶의 만족이 감소하는 것에 비해 학교생활적응은 중학교 3학년 때보다 고등학교 입학 후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3학년 시절에 높은 삶의 만족을 느끼는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 후 삶에 느끼는 만족이 완만하게 높아지고,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을 갖고 있던 학생은 느끼는 만족이 가파르게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성인기로 나아가면서 가족에 대한 의존이 감소하고 또래의 영향력이 증가하게 되고(조미형, 이정은, 2008; Hess & Copeland, 1997; Isakson & Jarcis, 1999, 재인용), 이에 따라 학생이 느끼는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정도보다는 또래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학교생활적응 정도에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학생이 학교에 느끼는 학교생활적응은 고등학교 입학 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취업과 대학진학으로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특목고와 일반고, 전문계고 등 각각의 집단에서 비슷한 목표를 갖고 있는 친구와 학교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는데서 오는 소속감, 안정감이 학교생활적응을 초기값에 비해 높여준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학생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에 내용에 따라 학교에 대한 소속감 및 안정감이 달라지며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는 학교생활의 만족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한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의미이다(김두환, 김지혜, 2011). 또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 후 오게 되는 생활 패턴의 변화, 대학입시, 진로결정에서 오는 스트레스(장혜주, 2012; 최준영, 2008)가 학생들의 삶의 만족을 감소시키는 변화가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어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 변인들의 변화가 서로 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 이론모형을 설정하고 살펴본 결과, 중학교 3학년 시기의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자녀가 느끼는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김영민, 임영식, 2013; 유미숙, 신미, 전성희, 2010). 특히, 안명희와 신희수(2012)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신에게 비난을 가한다고 느끼면 수치심, 자기비하, 우울과 같은 낮은 삶의 만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은 자녀의 삶의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삶의 만족은 학생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기존의 긍정적인 정서경험이 많고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연구결과(구지은, 2000; 이진아, 2007; 이현웅, 박윤정, 2011)를 지지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이 단일 시점에서 삶의 만족과 학교생활적응만의 관계를 밝혔지만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의 변화율이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즉, 삶의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정도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들이 선행변인의 오차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시간의 선후관계를 반영한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의 결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사이에 자녀가 느끼는 삶의 만족의 종단적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자녀의 삶의 만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는 효과가 아닌 계속적으로 유지됨을 알려준다. 이는 자녀의 중학교 3학년 시기의 부모 양육방식이 부정적일수록 삶의 만족이 낮아지고 결국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방식과 높은 삶의 만족을 지속적으로 느끼도록 장기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 외의 사회문화적 변인과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살펴본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중3, 고1, 고2 시점 이후의 자료를 추적 조사하여 세 변인의 종단적 양상과 유형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본 연구는 학생이 하루 생활 중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공간이며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학교에서의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탐색함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자녀의 삶의 만족을 매개로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부모의 양육방식,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을 다룬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시간경과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변인들 간의 실증적 관계 및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설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잠재성장모형을 함께 분석함으로 좀 더 엄밀하고 정확한 종단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통계분석상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기존의 횡단적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인 한 시점에서의 일시적인 효과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닌 시간 흐름에 따른 변인들의 관계를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의 장기적 관점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즉,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뿐만 아니라 학생의 심리적 삶의 만족을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주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

식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 방안 구축과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학생들의 내적·심리적 삶의 만족도를 조절해줄 수 있는 교육적 관리시스템이 개발되고, 이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활용된다면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의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만을 조절하는 단편적 방법이 아닌 학생의 삶의 만족까지 함께 고려한 올바른 교육 및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가영희, 조민자, 임성우 (2008).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청소년시설환경**, 6(4), 31-42.
- 곽금주 (1998). 사회인지발달적 관점에서 공격성의 평가와 중재에 대한 탐색. **심리과학**, 7(2), 1-18.
- 곽수란 (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1), 1-26.
- 구지은 (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 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용준, 김영희 (2011).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자아조절이 게임 과몰입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6), 99-121.
- 김두환, 김지혜 (2011). 부모·친구·교사와의 사회적 관계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한국사회학**, 45(4), 128-168.
- 김상미, 남진열 (2011).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8(4), 225-242.
- 김세원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신경, 박민경, 안지선 (2014).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 양육행동유형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6(2), 163-182.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 (2006). **청소년발달지표조사 1.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연구보고 06-R02).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민, 임영식 (2013).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잉적 양육,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2), 343-366.
- 김영주, 홍혜영 (201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의 관계: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2(4), 31-46.
- 김영춘, 정민숙 (2012).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 23, 51-70.
- 김윤희 (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스트레스와 정서경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자기위로능력을 매개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정현 (2008). 청소년기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3(4), 161-183.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기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주, 홍상환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6(1), 431-429.

김혜영 (2000). 초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5-223.

류은수, 서민원 (2015).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자기효능감이 수업이해도에 미치는 종단적 관계 분석. **교육평가연구**, 28(3), 903-932.

문은식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변인의 탐색적 고찰. **교육발전논총**, 23(1), 153-167.

박현정, 이진실 (2013).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부모자녀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 **교육평가연구**, 26(1), 83-106.

서미정 (2009). 초기 청소년의 회현적 공격성 변화와 비행, 우울/불안 및 학업성취감: 잠재성장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0(2), 141-167.

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 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차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3(1), 149-173.

손운용, 박수관 (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체계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8(3), 107-129.

신태수 (2014). 인간발달연구에서의 종단자료 분석: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1(3), 1-28.

안명희, 신희수 (2012). 연구논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2), 227-253.

- 안지연, 손영은, 남석인 (2014).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2), 261-284.
- 위유라, 노충래 (2014).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2), 203-227.
- 유미숙, 신미, 전성희 (2010). 연구논문: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안녕에 관한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7(9), 131-150.
- 유윤희 (1994). **학교적응·불안·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태희, 조영일 (2014). 부모-자녀 애착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종단적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3), 61-90.
- 이상균 (2012). 청소년기 비행행동과 부모양육행동간의 상호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6, 157-185.
- 이승화 (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특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교육연구**, 20, 85-104.
- 이은영, 김경혜 (2005).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0(1), 105-119.
- 이재성, 문연경, 최형임 (2012).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1(2), 233-246.
- 이정윤, 이경아 (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 이진아 (2007). **한부모 가정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 사회적지지 및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웅, 곽윤정 (2011).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8(7), 59-83.
- 장혜주 (2012). 청소년의 진로스트레스, 분노표현방식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부모교육연구**, 9(1), 75-93.
- 조미형, 이정은 (2008). 고등학교로의 진학 과정(school transition)에서 학교적응 변화: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9(2), 63-86.
- 조윤숙, 이경남 (2010).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가족환경 및 학교생활 부적응이 자살

- 생각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8(8), 27-37.
- 조호운, 김재철 (2011). 부모의 과잉적 양육행동, 청소년의 행복감, 공동체의식, 학교 적응 간의 구조적관계.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21-35.
- 최준영 (2008) 고등학생 보충·야간자율학습과 학업스트레스, 주관적 만족도, 가출 및 자살충동 간의 관계. **사회연구**, 16, 211-232.
- 하명선, 이순복 (200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3), 247-258.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성별 간 다집단 분석. **교육심리연구**, 21(1), 129-143.
- 홍세희 (2015).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 32. **양적 변화분석을 위한 잠재성장모형**, 50-80.
-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243, 277.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laden, J., & Gibbons, S. (2006). *The persistence of poverty across generations: A view from two British cohorts*. Bristol: The policy Press.
- Byrne, B. M. (199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LISREL, PRELIS, and SIMPLI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Chen, F. F. (2007). Sensitivity of goodness of fit indexes to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3), 464-504.
- Cheng, H., & Furnham, A. (2004).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self-esteem and self-criticism as predictors of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5(1), 1-21.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 Curran, P., & Bollen, K. (2001). The best of both worlds: Combining autoregressive and latent curve models. In L. Collins, & A. G. Sayer (Eds.), *New methods for the analysis of chang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ips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4), 636-654.
- MacKinnon, D. P. (2008). *Introduction to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New York: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Nesselroade, J. R. (1991). Interindividual difference in intraindividual change. In L. M. Collins, & J. I. Horn(Eds.), *Best methods for the analysis of change* (pp. 92-1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ears, P. S. (1965). Child-rearing factor related to playing of sex-typed roles. *Staff of the Laboratory of Human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 Seling, J. P., & Preacher, K. J. (2009). Mediation models for longitudinal data in developmental research.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6(3), 144-164.
- Steiger, J. H., & Lind, J. C. (1980). *Statistically-based tests for the number of common facto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spring meeting of the Psychometric Society, Iowa City, IA.
- Suldo, S. M., & Huebner, E. S. (2004). The role of lif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tive parenting dimensions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1-2), 165-195.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1), 1-10.

ABSTRACT

A longitudinal mediation analysis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nd latent growth modeling: The mediating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on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s to school life adaptation

Jeon, Hyeon-Jeong* · Chung, Hyewon*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the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on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s to school life adaptation. For this purpos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nd latent growth modeling was used and were adapted to the data taken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Wave III (9th grade) to Wave V (11th grade). The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from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showed that the previous student perceptions of parenting styles,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life adapt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ubsequent student perceptions of parenting styles,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life adaptation. Second, the results from latent growth modeling indicated that students whose perceptions of negative parenting styles were highly represented, had low life satisfaction in the 9th grade. Additionally, the students whose perceptions of negative parenting styles was highly represented, had low life satisfaction in the 9th grade. Finally, life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s to school life adaption. The implications of th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parenting styles, life satisfaction, school life adaptatio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latent growth modeling,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투고일: 2015. 12. 14, 심사일: 2016. 2. 15, 심사완료일: 2016. 3. 2